

## 트랜스내셔널 사회의 시민성 교육

이 종 일

대구교육대학교

### I. 머리말

운송수단의 발달은 지역이나 국가 간의 사람들의 이동을 가속화시켜 타집단 사람들과 마주침을 가져왔다. 타집단 사람들과의 마주침은 자연스럽게 사람들에게 자신들을 인식하는 계기를 제공하였고, 이에 사람들은 자신이 속한 집단과 타집단을 구별함으로써 자기 정체성을 형성하기 시작하였다. ‘민족정체성’도 이러한 과정에 형성되었다.

그러나 20세기 말 고도로 발달한 운송통신수단으로 인해 순환적·통근적 이동이 급증하여 집단 간의 경계가 희미해짐으로써, 사람들은 종래 집단을 준거로 정체성을 형성하는 것에서 개인의 선택적 삶을 중심으로 능동적으로 정체성을 형성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지금까지 탈국경적으로 이루어지는 이동과 정체성에 관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지구를 하나의 생활권으로 인식하고 그 변화에 사람들이 적응하여 살아간다는 전지구화(globalization)이론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연구자들은 운송통신 수단과 글로벌 경제현상으로 사람들의 삶이 동질적인 모습(획일화·국제화·표준화)으로 변해갈 것이라고 주장한다. 나아가 이들은 전 지구적인 이동에 개인들이 어떤 모습으로 적응해야 하나에 초점을 두고, 전 지구적인 사회변동에 필요한 ‘집단(국가·세계)정체성’을 정립하고, 이를 학습자에게 형성하는 것을 사회과 교육의 과제로 보고 있다.

이에 반해 트랜스내셔널화(transnationalization)<sup>1)</sup> 이론 주창자들은 인간을 전 지구적으로 이루어지는 사회변동에 순응하는 존재가 아니라, 인간 스스로가 사회변동에 선택적으로 반응함으로써 ‘개인중심 정체성’을 창조하는 존재로 보고 있다. 물론 트랜스내셔널화 이론 주창자들도 전 지구화 이론 주창자들과 마찬가지로 인적·물적 자원이 국경이나 지역을 넘어 빈번하게 이동하는 현상 속에서 개개인이 글로벌화 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이들은 순환적·통근적으로 이동하는 사람들이 글로벌화에 자동적으로 순응하는 존재가 아니라, 트랜스내셔널 상황에 개개인들이 적합한 판단을 스스로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필자는, 트랜스내셔널 시대 시민성 교육이, 순환적·통근적 이동자의 증가로 사람들이 세계·국가·지역↔개

1) 대부분의 연구자들은 트랜스내셔널화를 ‘국경을 넘어서는 순환적·통근적 이동이 일상적인 양상으로 나타나 국경이 인간의 삶에 미치는 영향력이 점차 약화되는 현상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이들은 트랜스내셔널화를 위로부터의 트랜스내셔널화와 아래로부터의 트랜스내셔널화로 구분하는 경향이 있다. 전자는 국가통치권과 관련된 국가 간의 협정·갈등조정 등의 정치적인 측면과 글로벌화한 기업과 관련된 경제적 측면에서 접근하는데 반해, 후자는 개인의 자율적인 차원 즉 사람들과 재화의 자유로운 이동과 관련된 사회·문화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다수의 연구자들은 트랜스내셔널화를 전자인 정치·경제면보다 인간들의 실제 행위가 드러나는 사회·문화적 양상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있다(Clavin, 2005: 421-439). Vertovec(2009: 4-13)은 트랜스내셔널화를 사회문화적 양상으로 보는 대표적 주창자로, 트랜스내셔널 양상을 ‘사회형태학의식 유형·문화재생산 양식·자본의 통로·정치적 계약의 장소·장소의 재구성’ 6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인으로 집단정체성을 수용해가는 방향에서, 사람들 개개인이 스스로가 집단 정체성과 구분된 개인중심의 정체성을 창조하는 방향(세계·국가·지역과 관련된 개인⇄지역·국가·세계)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사회과 교육은 개인 외부에 존재하는 집단(지역·국가·세계)이 바람직한 시민성을 설정하여 ‘집단정체성’이란 이름으로 개인에게 강요하는 시민성 교육이 아니라, 개개인들이 국가나 지역의 경계선을 자유로이 넘나들면서 ‘정체성’을 형성하는 시민성 교육으로 전환이 필요하다.

## II . 트랜스내셔널 사회 공간의 형성

### 1. 민족주의, 국제주의의 출현

16세기 서구사회는 영주를 중심으로 한 봉건왕원제 사회를 벗어나 왕을 중심으로 한 절대주의 국가로 자리 잡았다. 절대주의국가는 대외적으로 지배와 침략을 시도하면서 대내적으로는 단결을 요구하였다. 서유럽의 근대 민족국가들은 이러한 배타적·차별적 목적에서 시작되었다. 이 과정에 국가 외부 사람들과 국가내 사람들을 구분하려는 욕망은 자연스럽게 ‘민족’이라는 개념을 낳았다. 민족국가 간 경쟁과정에 발생한 국가 간 갈등은 그 해결을 위해 국제주의를 낳았다. 베스트팔렌 조약(1648)<sup>2)</sup>은 30년 전쟁의 결과로 만들어진 국가 간 평화체제 곧 국제주의의 이데올로기가 낳은 대표적인 사건이다.

당시 서구사회의 정치제도를 살펴보면 두 가지 특징을 띠고 있다. 하나는 ‘민족주의적 요소’ 이고 다른 하나는 ‘국제주의적 요소’이다. 민족주의와 국제주의라는 관념은 모두가 근대 자본주의 발달과정에 나타난 이데올로기이다. 그런데 18세기 이후 자본주의 발달과정을 살펴보면 전자는 물론 후자 또한 동시에 강화되어갔다. 전자인 민족주의는 제국주의 국가가 자본주의 사회로 발달하는데 필요한 인적 자원을 제공하는 데 용이하였으며, 후자인 국제주의는 민족국가 간 경쟁을 평화적으로 극복하는 과정에서 마련된 국가 간 ‘계약’이라 할 수 있다. 민족주의와 국제주의는 제국주의 국가 간 경쟁이 본격화된 19세기 후반에 접어들어서 더욱 활발해졌다. 사실 19세기에 권력을 잡은 제국주의 보수주의자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유지하기 위해 민족주의와 국제주의라는 이데올로기를 사용하였으며, 이 체제에 저항하는 진보세력 또한 자신들의 목적을 추구하는 과정에 두 이데올로기를 사용하여 힘을 결집하려 하였다.

이처럼 민족주의와 국제주의는 인간 사회에서 언제나 찾아볼 수 있는 이데올로기라기보다는, 봉건사회가 근대 자본주의사회로 전환하는 과정에 생겨난 역사적 산물이다. Wallerstein은 근대 서구사회에서 ‘민족’과 ‘국가’라는 개념이 등장하는 과정을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근대 세계의 ‘민족들(nations)’은 원래부터 있었던 민족들이 아니다. 이들은 창조되었다. 일부의 사람들은 민족으로 창조된 반면 그 밖의 조용히 살던 사람들은 타도되거나 왜곡되거나 종속되었다. ‘민족들’이 정치적 감정의 핵심요소로 부상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렸다. 대부분의 경우 한 민족

2) 독일의 북서부 베스트팔렌 지방에서, 30년 전쟁(1618-1648)을 종결시킨 조약으로 독일 프랑스 스웨덴 에스파냐 등이 참가하였다. 이 조약으로 네덜란드는 에스파냐로부터 정식으로 독립을 인정받았고, 루이 14세는 알자스 지방을 획득하였다.

을 창조하는 가장 강력한 단일 세력인 국가가 수립된 이후에야 민족정서가 형성되었다. 어떤 시기에는 민족이 국가를 반대하여 형성되기도 했지만, 이런 경우에도 각 민족들이 민족적 유대를 강화하는 요소로서 국가와의 유대를 추구하였다. 민족이 원래부터 있었던 것이 아니라면 국가는 더 말할 필요도 없다. 모든 국가는 근대체제의 창조물이다. 혹은 그럴듯하게 근대체제 이전의 정치체제와 근대국가 간의 문화적 연계를 주장할지 모르겠다. 그러나 국가 간 체제는 더군다나 존재하지 않았었다.(Wallerstein, 1995: 192)

위에서 보듯이 ‘국가’와 ‘민족’이라는 용어는 자본주의 발달과정에 생겨난 역사적 산물이다. 절대주의의 단일 세력인 왕이 ‘국가’를 형성한 후, 근대 자본주의국가의 발달과정에 ‘민족’ 혹은 ‘민족정서’라는 개념을 창조하였다. 근대사회에서 ‘민족’ 개념은 단순한 ‘혈연적 의미’라기보다는 자본주의 발달과정에 ‘혈연문화운명 등을 연결하는 정서의 동질성’과 같은 의미로 창조된 개념이다. Wallerstein은 민족주의와 국가주의<sup>3)</sup>가 항상 함께하지 않았음을 지적하면서, 이들 관계를 다음 세 국면으로 구분하고 있다.

첫 번째 기간은 대략 1450년에서 1815년까지로 잡을 수 있겠는데 일련의 국가들이 연속으로 서유럽에 등장했던 시기이다. 이 국가들은 서로를 연계시켜주는 국가 간 체제라는 조건으로 연관되었다. 그리고 사실 국가 간 체제에 의해 각국의 법적·도덕적 존립기반이 규정되었다. 이 기간에 ‘국가주의’는 있었지만 ‘민족주의’는 실질적으로 없었다. 19세기에 이르면 정치체제를 이데올로기적으로 강화했던 민족주의가 국가주의를 대체하기 시작했다. 1914-17년 이후 민족주의와 계급투쟁의 적대적 협력은 보다 강화되었다. 반체제운동 세력은 사회주의 운동과 민족적 운동을 혼합하였다. 보수주의 운동 세력도 현상유지를 지지하기 위해 민족주의와 국제주의를 적절히 혼합시키기도 했다.(Wallerstein, 1995: 194)

첫 단계는 15세기에서 18세기까지로 절대주의 국가체제가 공고화되어 가는 단계이다. 이 시기에는 ‘국가주의’라는 용어는 등장했지만, 민족국가나 민족주의라는 용어는 등장하지 않았다. 이 시기 서구인들이, 비유럽 지역의 토착민을 지배하기 위해 이주하면서, 국가주의가 시작되었다. 당시 서유럽사회는 비교적 동질적인 문화(언어·통혼관계·법적 체계·종교·경제·정치적 관행)로 구성되었기에 민족을 중심으로 한 국가가 등장할 수 있었다. 하지만 18세기까지 서유럽사회에는, ‘민족’을 중심으로 한 국가가 나타났지만, ‘민족주의’라는 이데올로기가 토대가 된 국민국가는 등장하지 않았다. 그래서 국경을 넘어 이주하는 사람들은 그다지 제약받지 않았다.

두 번째 단계는 19세기 전(全) 시기이다. 이 시기에 이르면 민족주의가 국가주의를 서서히 대체하기 시작하였다. 그동안 비교적 자유로이 이동하였던 이주자들은 민족국가의 성장으로 광범위한 제약을 받기 시작하였다. 시민권은 국가 간 이동을 제약하는 주요 수단이 되었다. 사실 19세기 서유럽 사람들은 다른 나라

3) 국가주의는 국가에다 최고의 가치를 두고자하는 사고방식으로 개개인은 국가에 종속해야 하고 국가 속에 보편적 윤리가 구체화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이데올로기이다. 이 이데올로기는 주권은 국가 자신에게 있고, 군주나 국민은 단순한 기관이라고 주장하는 국가법인설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영토를 강압적으로 지배하려 하였고, 이를 뒷받침하는 도구로서 ‘시민권(국민)’을 수단으로 사용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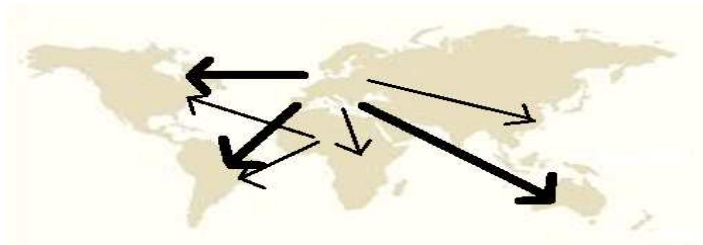
민족주의는 프랑스 대혁명(1789)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 대혁명 시기 부르봉 왕가의 절대왕정에 대해 저항하면서 프랑스 사람들은 자유평등권을 갖는 동등한 국민임을 인식하기 시작하였다.(차기벽, 1984: 133). 그 후 민족주의는 이탈리아와 독일을 통일하는 과정에 또 발칸반도 국가들을 분할재배치하는 과정에 절정에 달하였고, 심지어 황제가 통치하는 국가조차도 민족주의를 주요 이데올로기로 사용하였다. 서유럽 사람들은 자기 나라 주권의 고유성을 주장하면서, 민족국가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자유평등권을 부여함과 동시에 의무를 강요하는 ‘시민권’ 개념을 발전시켰다. 시민권은 대내적으로 권리에 따른 의무를, 대외적으로는 배타적 특권을 주장하는 근거가 되었다. 이로 보면 ‘시민권’은 바로 ‘민족’ 혹은 ‘국가’ 정체성을 의미하며, 시민성 교육은 바로 국가정체성 교육이라 할 수 있다(이종일, 2014: 181-211).

세 번째 단계는 민족국가 간 전쟁으로 시작된다. 국가가 시민에게 부여한 배타적 권리와 의무는 국가 간 충돌을 야기하였고, 그 결과 국가를 초월하는 새로운 질서 곧 국제주의를 요청하였다. 즉 민족국가의 확산은 국가 간 갈등을 해결하는 정치·경제적 질서를 요청하였고, 이에 부응하여 국가는 세계시민으로서의 자질을 구체화하려 하였다. 20세기에 이르면, 국제주의는 민족국가가 갖는 자국중심주의의 한계를 지적하면서 국제연맹·국제연합과 같은 초국가적인 기구를 결성하게 하였고, 다른 한편으로 민족자결주의라는 이름으로 민족 간의 평등을 인정하였다.

## 2. 자본주의의 발달과 국가 간 이주 방향의 변화

자본주의의 발달로 다수의 사람들은 자신이 태어난 지역이나 국가를 넘어 낯선 지역으로 이주하여 살게 되었다. 이러한 이주현상을 두고 연구자들은 ‘국가 간 이동’ 혹은 ‘국경을 넘어서는 이주’라 지칭하고 있다. 지금까지 이주는, 단순한 장소 이동이란 의미에 그치지 않고, 사람들의 사회의식을 변하게 하였다. 자본주의발달에 따른 이주유형의 변화를 살펴보면, 다음 3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1단계는 1400년대부터 1900년대 전반기까지로 서유럽 사람들을 중심으로 한 이주이다. 민족국가를 완성한 서유럽 사람들은 ‘민족’ 개념을 바탕으로 자신이 속한 국가 외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배타적으로 지배하려 하였다. 대항해 시대 이후 서구인들의 이주 방향을 그림으로 제시하면 [그림]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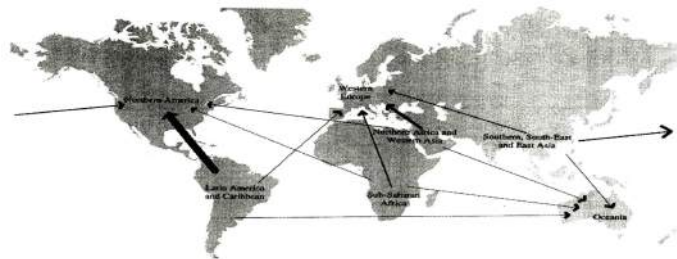


[그림] 대항해 시대 이주 방향

[그림]에서 보듯이, 서유럽 사람들은 전 세계를 자신들이 지배하기 위해 유럽이 아닌 지역(아시아·아메리카·아프리카·오스트레일리아)으로 이주하기 시작하였다. 당시 서유럽 사람들은 다른 국가 사람들이나 민족들을 열등한 존재로 보고 차별하였다. 차별을 정당화하기 위해 서유럽 사람들은 ‘민족’이라는 용어를 동

원하여 민족 간의 우열을 주장하고, 진화론에서 인종 간 우열의 근거를 찾았다. 또한 서유럽 사람들은 이주한 사람들이 국적을 가지지 못할 경우 백인이더라도 무국적자로 차별하였다. 이주자들은 국적을 취득하기 위해 혈연을 입증하거나 아니면 특정 지역에서 일정 기간 거주해야만 했다. 국적취득은 바로 민족이나 국가라는 범위 곧 내집단(국적)의 구성원임을 인정받는 유일한 길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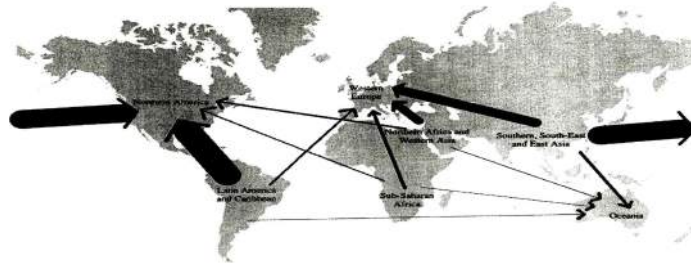
2단계 이주는 경제적으로 낙후된 소득 낮은 지역(남)에서 경제적으로 발달된 소득 높은 지역(북)으로 이주이다. 2단계 이주는 19세기 말부터 나타나기 시작하였지만 1900년 이후 본격화되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폭발적으로 증가하였다. 그렇지만 1980년대 이후 이주와 비교해 보면, 1960년대까지 이주는 비교적 느린 속도로 진행되었다. 2단계 이주를 제시하면 [그림2]와 같다.



[그림2] 남에서 북으로 이주(1960-1964)(Thomas Hammar & Kristof Tamas, 1997: 4)

1단계 이주가 서유럽 지역→비유럽 지역(아시아·아프리카·남북아메리카)으로의 이주라면, 2단계 이주는 비유럽 지역(아시아·아프리카·남아메리카)→서유럽 지역(북아메리카·서유럽)으로의 이주이다. 2단계 이주는 소득이 낮은 지역 사람들이 보다 나은 삶을 추구하면서 비교적 자발적인 동기에서 소득이 높은 지역으로 이주하는 모습이다. 그런데 1980년대 이전 까지 2단계 이주는 한번 이주하면 이주한 곳에 영구적으로 정착하는 유형이 대부분이었다. 그래서 이 시기 이주를 두고 ‘일일생활권’이나 ‘지구촌’ 등과 같은 개념을 적용하기는 적절하지 않다.

그러나 1980년대에 이르면 국가 간 이주는 운송통신수단의 비약적인 발달로 이주의 동적밀도가 현저히 증대되었고, 이주 모습 또한 한번 이주하면 영구적으로 이주하는 종전의 유형과는 달리, 순환적·통근적으로 이동하는 비영구적 이주가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필자는 이러한 순환적·통근적인 비영구적인 이동을, 1960년대 2단계의 영구적 이주와 구분하여, 3단계 이주현상으로 보고자 하였다. 1980년대 이후 이주를 제시하면 [그림3]과 같다.



[그림3] 남에서 북으로 이주(1980-1985)(Thomas Hammar & Kristof Tamas, 1997: 5)

운송통신 수단의 비약적 발달은 영구적 이주를 순환적·통근적 이동이라는 비영구적 이주로 변화하게 하였다. 1980년대에 이르면 세계 각국은 더 이상 격리되지 않고 서로 연관되어 하나로 움직이게 되었다. 이제 사람들은 전 지구가 하나의 생활권으로 된 공동체라는 인식을 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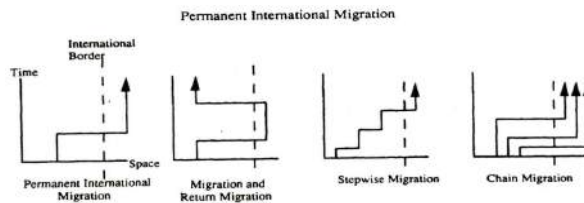
특히 1990년대에 이르면 이주의 수적 증가 못지않게 이주유형에서의 질적 변화가 본격화되었다. 순환적·통근적 이동이라는 비영구적 이주가 대표적인 이주유형이다. [그림3]을 살펴보면, 순환적·통근적 이동의 급증은 ‘전 지구가 하나’ 라는 글로벌공동체 의식에 머물지 않고, 사람들의 마음속에 ‘국경’의 의미가 점차 희미해지는 ‘트랜스내셔널 사회 공간’ 으로의 변화를 초래하였다.

### Ⅲ. 이주유형과 시민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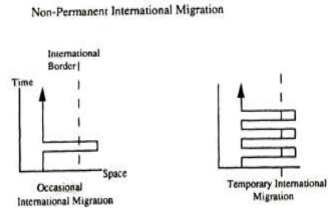
#### 1. 영구적 이주에서 비영구적 이주로

II 장 2절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가 간 이주의 증가는 그 자체로도 사람들에게 매우 큰 의미를 주고 있다. 그런데 21세기에 들어오면, 이주는 양적으로 증가함에 그치지 않고, 이전 시기에 볼 수 없었던 이동 유형이 급증하였다.

Malmberg는 국가 간 이주를 영구 이주와 비영구 이주로 구분하고 있다. [그림45]는 이주유형을 영구적 이주와 비영구적 이주로 구분한 것이다(1997: 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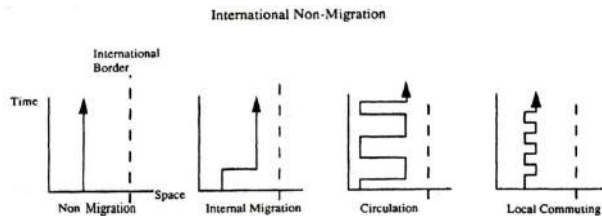
[그림4] 국가 간 영구적 이주유형



[그림5] 국가 간 비영구적 이주유형

[그림4]를 살펴보면, 20세기 전반기까지 국가 간 이주는 영구적 이주(4가지 유형)가 대부분이었다. 이에 반해, 21세기에 들어오면 [그림5]에서 보듯이 영구적 이주는 물론 이전시기에 거의 볼 수 없었던 이주유형이 현저히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일시적인 국가 간 이주’와 ‘잠정적인 국가 간 이주’라는 순환적, 통근적 이동의 증가는 장소나 집단을 중심으로 한 국가정체성이나 지역정체성의 변화를 요구한다. 즉 특정 국가에 의존하지 않는 순환적·통근적 이동의 증가는, 국가나 민족에 의존하는 ‘국가민족정체성’이나, 자신이 속한 국가와 다른 여러 국가가 공존 결합하는 ‘글로벌 공동체’ 의식을 갖게 하기보다는, 한 개인의 삶을 중심으로 국경을 넘나드는 ‘트랜스내셔널 의식’으로 변화를 가져온다.

이러한 트랜스내셔널 이동은 국가 간 이동에만 거치지 않고, 국가 안에서도 그와 유사한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 아래 [그림6]을 살펴보면 앞 두 유형(비이주, 국내이주)은 영구적 이동인데 반해, 세 번째의 순환적 이동과 네 번째의 통근적 이동은 비영구적 이동이다. 이처럼 국가 안에서도 이전시기에 보기 어려운 순환적·통근적 이동이 현저히 증가하고 있다.



[그림6] 국내 시공간 이동 유형

순환적·통근적 이동의 증가는, 지역이나 국가가 사람들에게 주는 영향을 현저하게 약화시켜, 특정 지역이나 국가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다는 생각을 개인들이 하게 되었다. 이제 사람들은 지역이나 국가 중심의 ‘공동체 의식이나 정체성이 희미해지는 방향으로 의식의 변화를 겪고 있다.

## 2. 트랜스내셔널 사회 공간과 시민성

자본주의의 발달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시공간을 변화시켜왔다. 21세기 시공간의 변화는, 일명 ‘트랜스내셔널 사회 공간’<sup>4)</sup>이라고 지칭되면서, 이전시기 장소를 준거로 한 사람들의 인식에 중요한 변화를 야기

하고 있다. 이러한 인식 변화는 종래의 ‘개인·사회·국가·세계 정체성’에 중대한 위협이 되고 있다.

종래 사회와 교육에서 시민성은 특정 지역을 바탕으로 그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집단 귀속감을 확인시켜 주는 민족주의 혹은 국가주의 형태로 나타났다. 민족은 언어와 형통과 지역을 공유한다. 그래서 민족주의는 국경으로 분리된 타 지역에서 살아가는 민족이나 문화에 대해 배타성을 보이면서, 국경안의 사람들에게는 ‘민족’이란 용어를 사용하여 동질적인 사고(가치·규범·문화)를 요구한다. 이러한 동질적 사고는 시민성이란 용어로 지칭되었고, 그것은 국경을 넘어서 타국의 시민성과 구분되었다. 시민성의 차이는 국가 혹은 민족 간의 충돌을 가져왔고, 국가 간 갈등을 해결하는 과정에 국제주의가 등장하였다.

19세기 서구사회에서는 국가 간 충돌이 본격화 되었고, 이를 해결하는 과정에 국제주의(국제연합·국제협약·국제법)가 생겨났다. 국제주의의 기본 단위는 국가나 민족이다. 그런데 민족주의와 국제주의는 한편으로는 서로 모순되면서 다른 한편으로 공존하고 있다. Wallerstein은 민족주의와 국제주의의 상호 모순성을 인정하면서도 이들이 긴장관계를 이루며 상호 공존하고 있음을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있다.

두 사람(Marx, Lenin)은 모두 민족주의와 국제주의는 모순된다고 인식했다. 민족주의와 국제주의는 이론상으로는 실천적인 면에서나 본질적으로 서로 다른 역사적 시대에서 나왔으며, 사회주의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민족국가의 ‘소멸’과 보다 고차원적인 ‘국제주의적 단위’로 ‘국가들의 융합’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고 이들은 생각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의 정치적 발전양태를 보면 최소한 민족국가의 소멸과정은 그렇게 단순하지도 또 그렇게 일사분란하지도 않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민족주의와 국제주의 모두 자본축적 과정에서 암묵적으로 깔린 구조적 조건에 대한 정치적 이데올로기적 반응양태들이라고 앞에서 언급했다. 세계경제라는 단위와 다양한 국가들 간의 분업 사이의 구조적 모순에서 민족주의와 국제주의는 도출되었다고 주장했다. 더 나아가 역사적으로 결정된 민족주의와 국제주의 사이의 긴장은 근대세계내의 조직 원리로서 특수성과 보편성 간의 갈등, 긴장과 관련된 광범위한 역사발전의 제 양상 중 한 측면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강조해 두고 싶다. 이 긴장관계는 좁게는 사회활동의 정치적 영역에서 뿐만 아니라 넓게는 문화적·지적 영역에서 드러나는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차 뚜렷이 그 양상을 규정할 수 있게 되었다.(Wallerstein, 1995: 207)

위에서 보듯이 국제주의는 일면 민족주의와 모순되지만, 다른 한편으로 민족의 이익을 둘러싼 민족 간의 충돌을 전제하지 않고는 존재 할 수 없다. 그러나 민족주의가 한 국가의 시민성을 전제하고 있는데 반해, 국제주의는 다른 민족이나 국가와의 긴장관계 속에서도 상대방에 대한 상호존중을 전제한다. 전자는 국가 시민성 교육이라는 이름하에 국내적으로 동질성을 확보하는 적응교육으로, 후자는 다른 나라의 국가시민성을 인정함으로써 국가 간 갈등을 해소하는 국제이해교육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이주의 동적밀도가 증가함에 따라, 국가나 지역을 바탕으로 세상을 보는 자기중심적 지역주의나 민족주의에 근거한 국가시민성 교육을 재고할 것이 요구되었고, 타지역·타국가·타민족을 상호 인정함으로써 갈등을 해결하려는 국제주의 또한 이전 시기에 예측하지 못한 전 지구적 문제의 출현으로 새로운 국면을

---

4) Ludger Pries(1996)는 '트랜스내셔널 사회 공간(transnational social spaces)'이란 용어를 사용하는데 반해, Linda Basch(2000)는 '트랜스내셔널 사회 영역(transnational social fields)'이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이용일, 2009: 321). Faist(2008)는 전자인 '트랜스내셔널 사회 공간'이란 용어를 택하고 있다.



맞게 되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1960-70년대의 노력은 두 방향으로 전개되었다. 하나는 국가란 공간 속에서 하나의 문화(민족)만을 인정하는 시민성교육에서 다수의 문화(민족)를 인정하는 다문화교육으로, 다른 하나는 국가 간 갈등해결에 초점을 두고 다른 나라를 이해하는 국제이해교육에서 전 지구적인 문제를 함께 해결하는 글로벌교육으로 나아갔다.

그러나 지역이나 국경을 넘어서는 순환적·통근적 이동의 증가는 이전 시기 시민성과는 질적으로 다른 의식을 요구하고 있다. 즉 1990년대 이후 순환적·통근적 이동의 일상화는, 하나의 지역·민족국가에 의존한 공동체의식은 물론 전 지구적 공동체의식 또한 약화시키고 있다. 이처럼 이주유형의 변화는, 지역공동체에서 국가공동체로, 나아가 글로벌 공동체로 이행하는 공간변화에 그치지 않고, 사람들이 공동체에 대해 갖는 동일시의식(정체성)의 변화를 초래하고 있다. 요컨대 트랜스내셔널 사회의 등장은 한 개인이 그 동안 갖고 있었던 ‘지역·국가세계’에 대한 ‘정체성’을 해체하거나 약화시켰고, 나아가 새로운 정체성 창조라는 국면을 가져오게 하였다.

#### IV. 트랜스내셔널 사회 공간과 정체성의 위기

##### 1. 트랜스내셔널 사회 공간의 특징

국경을 넘어 이주하는 이주자의 증가는 사람들에게 세계를 탈국경적 사회공간으로 인식하게 하였다. Faist(2008: 8)는 ‘국가 간 이주와 도피가 야기하는 트랜스내셔널 사회 공간’을 <표1>과 같이 세 유형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표1> 국가 간 이주와 도피에서 야기되는 트랜스내셔널 공간 유형

사회공간유형	주요 결속 자원	주요 특징	전형적 보기
트랜스내셔널 친족집단	<b>호혜:</b> 한 집단이 다른 집단으로부터 받은 것은 어떤 대가를 요구한다.	등가의 <b>사회적 규범</b> 을 지지한다.	이민국가에서 송출국가 가족에게 보내는 <b>송금</b> (예: 계약노동자)
트랜스내셔널 순환회로	<b>교환:</b> 행위자의 공동의 책무와 기대; 도구적 활동의 결과(예: 동일배상 원리)	<b>내부자의 이점을 이용:</b> 동료 네트워크 안에서 강하고 약한 사회적 결속(언어)	<b>교역네트워크</b> (예: 중국·레바논·인도 사업자)
트랜스내셔널 공동체	<b>연대:</b> 집합 정체성의 일종으로 나타난 공유된 생각·믿음·평가·상징	추상적 상징적 결속으로 <b>집합표상</b> (종교·국적·인종·문화집단) 동원	<b>디아스포라</b> (예: 유대·아르메니아·팔레스타인·쿠르드인), <b>국경경제지역</b> (예: 멕시코-미국, 지중해 국가)

Faist는 트랜스내셔널 사회공간을 세 유형 즉 친족집단·순환회로·공동체집단으로 구분하였다. 그는 트랜스내셔널 친족집단 구성원들이 전통사회 친족집단 구성원들과 마찬가지로 ‘호혜’ 원리를 바탕으로, 등가의 사회적 규범을 지지한다고 보고 있다. 그들은 ‘이민국가’로 부터 ‘송출국가’에 보내는 ‘송금’이라는 수

단을 통해 친족집단의 결속을 유지한다. 트랜스내셔널 순환회로 구성원들은 무역네트워크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행위자의 공동의 책무와 기대를 중심으로 한 ‘교환’ 원리를 바탕으로 순환회로 내부 사람들 간의 이점을 이용하고 있다. 트랜스내셔널 공동체는 디아스포라국경경제지역 등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집합표상과 같은 ‘연대’ 원리에 의존하고 있다.

이처럼 트랜스내셔널 사회 공간의 이주자의 삶도, 이전 시기 지역에 의존한 인간의 삶과 많은 공통점이 있다. 하지만 지역이나 국가라는 경계를 넘나드는 개인의 자유로운 활동은 어느 한 쪽의 문화에만 구속되지 않고 자신의 문화를 주체적으로 창조융합하는 길을 열어주고 있다. 사실 제2차 세계대전 이전까지 민족국가들은 이주자들에게 자국의 문화를 일방적으로 받아들일 것을 강요하는 동화주의 정책을 취하였다. 그러나 이주자의 수와 동적밀도의 증가 그리고 이주유형의 변화는 이주자에게 요구하는 적응 방식을 ‘동화주의→다원주의→트랜스내셔널화’로 변화시켰다. Faist는 이민자에게 요구하는 적응 방식을 3단계로 구분하고, 이를 <표2>와 같이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Faist, 15)

<표2> 이민자 수용국가에서 본 이민자 적응을 위한 세 개념

적응영역	동화주의	문화인종적 다원주의	국경을 넘나드는 사회공간의 확장
주요예측	핵심문화에 융합	다원화	트랜스내셔널화
정치	민족(국가)시민성: 단일한 국가·정치적 문화	다문화시민성: 정치문화의 공동 요소들은 문화차이를 인정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중국적: 여러 국가들의 정치·문화적 요소들이 상호보완적이 될 수 있다.
문화	문화이식: 국가의 핵심 가치와 행위에 전면적으로 적응	문화유지: 새로운 상황에 유지되는 관습들; 이민 송출국가로 부터 이식된 집합정체성	문화융합창조: 문화전파와 새로운 유형의 혼합된 정체성이 출현

<표2>에서 보듯이 Faist는 이민 수용국가가 이민자들에게 요구하는 적응 방식을, 이주민의 수빈도·이주공간 인식의 정도에 따라, 동화주의→다원주의→트랜스내셔널화의 세 단계로 나누고, 이를 정치면과 문화면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즉 정치면에서는 ‘민주시민성→다문화시민성→이중국적’으로, 문화면에서는 ‘문화이식→상호 문화인정→문화융합창조’로 변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첫 단계인 동화주의 시각에서 보면, 이주자의 문화는 송출국가로부터 가져온 수하물꾸러미와 유사하다. 국가는 시민권을 매개로 하여 주류집단이 가지고 있던 주류문화를 시민성이란 이름으로 소수자 집단에게 이식하려 한다. 두 번째 단계인 다원주의는 소수자 집단의 문화를 폐기하지 않고 그대로 인정하려한다는 점에서 첫 단계와 구분되지만 문화를 고정된 것으로 보는 점은 동화주의의 문화에 대한 태도와 그다지 다르지 않다.

이에 대해 Faist는 동화주의는 핵심문화를, 문화적 다원주의는 소수자의 문화를 지나치게 강조하면서, 이 두 이론 모두가 문화를 고정된 본질적인 현상으로 보는 점에서는 다르지 않다고 지적하고 있다. 즉 그는 문화를 물건을 담은 컨테이너로 보는 점에서는 놀랍게도 두 이론 모두가 유사하다고 지적하면서, 두 이론 모두가 문화를 ‘공유된 언어와 다소 정태적인 것에 기초한 영토적인 것’ 즉 ‘컨테이너(container)’에 비유하여 보았다. 단지 동화주의가 주류문화의 전달에 치중한다면, 다원주의는 주변부문화의 유지에 지나친

고집을 하고 있다는 점이 다를 뿐이다(Faist, 26). 결과적으로 두 이론 모두가 문화를 고정된 것으로 봄으로써 문화들 간의 마주침에서 오는 탈국경적 문화 충격에 따른 융합이나 창조에 대해 등한시하고 있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다(Faist, 29).

이처럼 Faist는 문화를 변하지 않은 ‘컨테이너’로 보는 관점을 비판하면서, 문화에 대한 ‘대안적 개념’이 이 시기에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문화가 인간의 소프트웨어적인 요소와 관련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문화를 ‘도구상자(the tool kit)’로 봄으로써 문화 자체의 융합·창조적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즉 그는 문화를 고정된 것으로 보기보다는 유동적인 것으로, 국지성(locality)보다는 공간성(spatiality)에 의존한 개념으로 보고 있다. 이를 근거로 그는 오늘날 트랜스내셔널 문화를 설명함에 있어서 종전의 ‘문화컨테이너’ 개념을 넘어서는 ‘트랜스내셔널 혼합주의(syncretism)’라는 개념을 사용하면서(Faist, 31), 트랜스내셔널 시대 문화는 문화의 보존유지가 아니라 서로 다른 문화가 뒤섞이면서 새로운 문화를 융합·재창조하게 된다고 보고 있다.

이상을 근거로 <표2>에서 제시된 바를, II장 2절에서 제시한 3단계 이주유형과 관련지어 보면 다음과 같다. 앞선 두 시기의 민족시민성이나 다문화시민성 그리고 국제주의를 바탕으로 한 국제이해교육은 모두가 문화를 고정된 ‘컨테이너’로 보고 있다. 이에 반해 트랜스내셔널 시대에 나타나는 ‘문화융합·재창조’는 지역·국가에 바탕을 둔 시민성이 한계에 이르고 있음을 보여준다. 트랜스내셔널 이동의 일상화는 이전 시기 시민성과 구분되는 개인 차원에서 융합·창조하는 새로운 시민성(정체성)으로 나아갈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 2. 트랜스내셔널 시대 ‘정체성’ 개념의 재정립

사람들은 태어난 지역이나 국가에서 오랫동안 머물며 살아갈 경우 자연스럽게 그 지역이나 국가의 성원으로서 정체성을 느낀다. 그런데 최근 순환적·통근적 이동의 증가로 사람들의 의식 속에 지역이나 국가라는 경계가 희미해지면서 특정 장소(공간)를 기반으로 한 ‘정체성’은 심각한 도전을 받게 되었다. 우선 필자는 정체성 문제를 논의하기에 앞서, ‘정체성’의 의미를 다시 한 번 검토하고자 한다.

우리가 어떤 용어의 의미를 밝히려 할 때, 간혹 ‘용어’ 자체의 의미를 파악하기에 앞서 그것이 사용되는 맥락들을 서로 비교함으로써 의미를 유추하기도 한다. 사실 우리는 사용하는 단어가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도 모르고 사용하는 경우가 자주 있다. 사회과 교과에서 정체성이란 용어를 사용할 때도 정체성의 의미를 파악하여 사용하기 보다는 지역정체성이나 국가정체성·세계정체성 등의 용어를 사용하는 가운데 정체성의 의미가 자연스럽게 밝혀질 것으로 기대한다. 사실 정체성이란 용어는 그 자체만 독자적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드물고, ‘민족정체성·성정체성·국가정체성’ 등과 같이 정체성 앞에 특정 단어가 수식어로 붙어 사용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런 표현들은 정체성의 대상인 집단에 대해 정의내리고 있을 뿐 정체성 자체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알려주지 않는다.

사실 사람들은 매순간 특정의 장소(공간) 속에서 사회관계를 맺고 살아간다. 그런 사회관계 속에서 사람들은 자신이 여러 집단(장소)에 소속되어 있음을 발견한다. 중첩적인 장소(집단) 소속감은 다중정체성과 관련된다. 뱅상 데콤브(Vincent Descombes)는 ‘나 스스로는 다른 누군가로 바뀌지는 않는데 정체성이 변화할 수 있는가’, ‘평생 동안 끊임없이 변화하는 나를’ 나 ‘라고 규정해줄 수 있는 ‘나의 정체성’을 어

디서 찾을 수 있는가’에 대해 의문을 갖는다. 그는 국가가 “다중정체성이란 듣기 좋고 애매한 담론들을 앞세워 개개인의 ‘다양성’을 억누르고(물론 단일정체성이란 것은 일종의 종교이자 구시대적인 개념일 뿐이다)있다.”(르몽드 디플로마티크, 2014년 2월호, 3면)고 주장하면서 다중정체성이란 용어를 비판하고 있다. 그러면서 데콩브는 집단정체성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민주주의사회에서 그것이 획일화된 단결성으로 나아가는 것을 경계하면서, 개개인의 표현의 자유가 존중되는 개인정체성이 발현될 것을 주장하고 있다.

구성원이 세상에 스스로를 들어낼 수 있는 일종의 언어 형태를 가지고 있는 집단은 하나의 집단정체성을 지니게 된다. [...] 우리는 해당 집단의 구성원들이 ‘그들은 누구인가’에 대해 표현하는 모든 순간 속에서 그 집단 정체성을 발견할 수 있다. [...] 집단이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을 드러내는 ‘기념물’을 통해 그들 스스로에 대한 인식을 보여주는 각종 ‘의례’와 ‘의식’을 통해, 또한 그들이 후손에 물려주고 싶은 것들을 담아내는 ‘교육’을 통해 그들이 가진 집단정체성을 엿볼 수 있다. 집단은 이렇게 스스로를 들어낸다. 그런데 무엇을 위해 드러내는 것일까? 바로 그들이 집단 고유의 이익이라고 여기는 것들을 분명히 표명하기 위해서이다. 각 집단이 ‘공공이익’ 또는 ‘공동이익’이라고 불리는 고유의 이익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은 이론의 여지가 없다. [...] 집단정체성이 없는 사회는 ‘우리’라는 개념도 없는 곳이고, 정치적으로 표현하자면 결국 민주적 주권 실현이 없는 곳이라 말할 수 있다. 민주정부는 각각의 국민이 일반의지의 주체인 ‘우리’안의 ‘나’의 성장을 도모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정의는 오늘날 커다란 반론을 불러일으키기도 한다. 국가라는 공동체 중 국민들의 만장일치를 강요하는 국가에서 사용되는 ‘우리’라는 개념은 실제 가능하지도 않을뿐더러 이론상으로 달갑지 않다. 민주주의는 의견의 불일치를 인정하고 각 개인의 표현할 자유와 반대 목소리까지도 존중하는 반면, 그들이 말하는 ‘우리’에의 갈망은 모두가 같은 의견을 내는 단결성 있는 정치단체에 대한 급진 민주주의가 앓고 있는 강박증일 것이다. 그러니 그런 ‘우리’, 국민(Demos)의 단순한 집합명사로 쓰인 개념이 빠진 민주주의를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민주주의가 정말로 존재하도록 하려면, 개개인이 자신의 의견을 품고 표현할 자유가 있어야 한다.[...] 집단정체성이 그 집단이 특정한 상태, 요컨대 완전히 하나로 통일된 상태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결과적으로 이 문제에 대한 개념을 바르게 알기 시작하면서, 스스로가 ‘우리는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라는 질문을 던질 수 있도록 하는 의미의 ‘정체성’과, 모든 사람이 동일한 답을 해야 한다는 ‘단결성’을 더 이상 혼돈하지 않을 것이다.(르몽드 디플로마티크, 2014년 2월호, 3면)

이상에서 보듯이 데콩브는, 획일성에 토대한 단결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경계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오히려 집단 정체성을 인정하는 가운데 그 속에서 사람들이 개별적인 의견을 자유로이 표현하는 다양성을 향한 길 또한 열어 두고 있다. 즉 그는 ‘우리는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라는 질문을 던질 수 있도록 하는 ‘정체성’과, 모든 사람이 동일한 답을 해야 한다는 ‘단결성’을 더 이상 혼돈하지 않기를 주장하면서, 앞으로의 정체성은 집단이 아니라 개인에서 시작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렇게 트랜스내셔널 시대 정체성은 단결성을 토대로 한 집단정체성이 아니라 개인에서 출발하여 집단 속의 개인이 자유롭게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정체성’으로 나아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sup>5)</sup>

5) Faist(2008: 31 ; Swidler, 1986: 273-88))는 순환적·통근적 이동이 증대함에 따라 문화를 ‘컨테이너’로 보지 않고 ‘도구

### 3. 다문화시민성, 글로벌 시민성의 한계

#### 1) 다문화 시민성의 한계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이주자의 지속적인 증가로 주류집단 사람들도 소수자집단의 문화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국가 또한 소수자집단의 문화를 인정하는 문화상대주의적 관점을 수용하여 인종 간 갈등을 치유하려 하였다. 이러한 다원주의 관점의 수용은 사회과에서 다문화교육을 낳았다.

다문화교육에서 다문화시민성은 20세기 초 사회과 교육 형성기의 민주시민성과 비교하여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 20세기 초 사회과 교육은 주류집단 문화에 토대한 민주시민성을 함양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하였다. 이 시기 국가정체성은 바로 주류집단의 문화가치·종교 자체라 할 수 있으며, 시민성교육은 바로 국가정체성 교육을 의미하였다. 따라서 이주민에 대한 교육도 이러한 국가시민성을 그들에게 심어주는 것이 주요 목적이었다. 이에 반해 다문화교육에서 시민성은 주류 문화나 민족에 토대한 획일화된 시민성에서 벗어나 다양한 민족이나 문화를 인정하고 유지하는 다문화시민성을 수용한다.

그러나 최근 탈국경적 이동의 일상화 다시 말하면 ‘순환적·통근적 이동’의 증가는 외부 집단을 배타적으로 구분하던 ‘국경’의 의미를 상당 부분 희미해지게 함으로써 문화가 뒤섞이면서 융합창조 현상을 가져왔다. 그 결과 소수자집단의 문화유지를 주장하는 다문화주의나 이를 교실수업 속에서 실천하는 다문화교육은 한계를 드러내게 되었다.

다문화주의는 문화·민족·종교의 상호인정과 유지에 바탕을 둔 용어이다. 그런데 다문화주의 또한 동화주의와 마찬가지로 문화를 ‘컨테이너’로 간주한다. 이 시각에서 보면 사람들은 문화라는 컨테이너 속의 여러 가지 내용물(가치·관념·관습 등)을 이용하여 살아갈 뿐이다.

이에 반해 트랜스내셔널화 이론 주장자들은 문화를 ‘도구상자’로 본다. 이들에게 문화는 한번 만들어지면 유지되고 지켜져야 될 유산이라기보다는, 앞 문화는 시대의 흐름에 맞추어 융합·재창조되어 현재 문화를 낳고, 현재의 문화는 이후 문화를 형성하는 또 다른 도구상자가 된다. 이들에게 문화는 고정된 것이라기보다는 다음 문화를 위해 필요한 유동적인 자료에 지나지 않는다.<sup>6)</sup> 이처럼 이들은 트랜스내셔널 사회에서는 사람들은 문화라는 도구상자를 활용하여 자신들에게 적합한 새로운 문화를 융합·창조한다고 봄으로써, 오늘날 문화가 ‘트랜스내셔널 혼합주의(syncretism)’의 성격을 띠고 있다고 보고 있다.

이상으로 볼 때 주류문화에 동화할 것을 주장하는 동화주의 교육은 물론이지만, 문화를 고정된 것으로 간주하고, 소수자집단의 문화를 인정하는 다문화시민성 교육도 문화가 갖는 융합·재창조 기능을 간과하는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물론 이 순간에도 앞 두 이론이 주장하는 집단소속감이나 상호인정을 위한 교육 역

---

상자(tool kit)’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Welsch(1999, 194-205)는 앞선 시기 학자들은 문화를 섬(island)과 같은 것으로 본다고 비판하면서, 다문화간문화 개념 또한 이 범위에서 문화를 이해한다고 보고 있다. 그는 문화를 고정된 것이 아니라 서로 뒤섞이면서 재창조되고 변화되는 것으로 보는 ‘문화 넘어우르기(transculturality)’ 개념을 사용할 것을 주장한다.

6) 화이트헤드는 ‘모든 현상은 변화와 이동 속에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설명은 정지된 상태로 기술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와 이동의 한복판에 있는 ‘과정(process)’을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함으로써 과정 철학의 기반을 제공하였다. 그는 역사의 진행과정에 나타나는 한 순간의 현실적 존재는 그 자신의 ‘과정’이면서 실재가 되고, 또 ‘실재’는 그 다음 순간에 ‘과정’이 된다고 생각하였다. 나아가서 그는 자신의 과정철학을 근거로 하여 인간현상의 모든 과정은 미리 결정된 것이 아니라, 항상 새로움으로 나타나고 또 현상들은 상호 연결된 수준에서 상호관련을 맺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이에 대한 이해는 과정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비로소 가능하다고 하였다.(이종일, 2001: 9-10)

시 어느 정도 필요하다. 그러나 다수의 문화가 한 공간 속에서 함께 뒤섞이는 트랜스내셔널화는 사람들에게 ‘도구상자’를 활용하여 자신들에게 적합한 문화를 혼용·재창조하는 교육을 요구한다.<sup>7)</sup>

## 2) 글로벌 시민성의 한계

앞서 살펴보았듯이 다문화시민성은 한 국가 안에서 문화 간 상호인정을 전제로 한 국가정체성에서 출발한 용어인데 반해, 국제이해교육은 국가 간 문화의 상호인정을 전제로 한 세계정체성에서 출발한 용어이다. 국제이해교육에서 국가는 타국가의 문화나 제도를 이해함으로써 다른 국가와의 갈등을 상호협상이나 국제법과 같은 모습으로 해결하려 하였다. 사회와 교육에서 국제이해교육의 목적도 국가 간 상호인정에 필요한 다른 나라의 문화가치·제도·종교·인종 등에 대한 심층적 이해로 나타났다.

그런데 20세기 후반기 운송통신 수단의 급격한 발달은 전 지구가 하나의 이해관계로 얽혀있음을 인식하게 하였다. 이러한 인식변화는 지역정체성은 물론 국가정체성의 한계를 동시에 넘어설 것을 강조하였다. 세계정체성에 대한 강조는 한편으로 민족주의에 바탕을 둔 지역이나 국가정체성을 위협하였지만 다른 한편으로 전 지구적 문제를 여러 국가들이 함께 해결하는 방향으로의 전환을 가져왔다. 이런 가운데 국내문제 또한 한 국가나 몇몇 국가 간에 나타나는 단순한 이해관계에 머물지 않고 전 지구적 문제와 얽혀있음을 알게 되었다. 그 결과 국내문제 해결에서도 국제이해교육을 넘어서 글로벌교육으로 나아갈 것을 요구하고 있다.

글로벌 교육에서 문화는 전 지구적으로 동질적인 문화로 나아가고 있으며, 그것이 인간 외부에 존재하는 어떤 집단적인 힘(글로벌 경제현상)에 강요된 문화로 설명되고 있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 순환적·통근적 이동의 급격한 증가는 국경의 의미를 무너뜨리는 트랜스내셔널 사회의 출현을 가져왔다. 이러한 변화는 특정 경계 내에 묶여 있던 개개인들이, 자유롭게 이동하면서 자신의 삶을 능동적으로 선택할 수 있게 됨으로써, 전 지구라는 집단에 의해 강요되던 글로벌교육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하였다. 또한 글로벌교육에 대한 반작용으로 세계 도처에서는 특수주의(particularism)가 분출하고 있는데, 글로벌교육은 이러한 현상을 도의시하고 있다(Welsch, 1999: 204). 사람들은 글로벌화된 획일성에 저항하고 특수한 개개인이 되기를 원한다. 즉 사람들은 자신과 다른 사람을 구별하기를 원하고, 그런 가운데 특수한 자기정체성을 정립하기를 원한다(Welsch, 204). 따라서 현 시대의 시민성교육은 글로벌교육을 넘어서서 특수성의 요구를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 Welsch는 ‘문화 넘어우르기(transculturality)<sup>8)</sup>가 이러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고 본다(Welsch, 205).

요컨대 트랜스내셔널 시대의 시민성은 세계성과 개인특수성을 함께 아우르면서 개인이 중심이 되어 문화를 융합·재창조하는 ‘혼합주의 시민성’으로 나아갈 것이 요구된다.

7) 이윤일은 「혼종과 횡단의 공간으로서 유럽과 정체성 정치: 독일 터키 이주민을 중심으로」에서 국가 간 문화 만남은 문화변용과 문화 창조를 가져온다고 주장하고 있다.(이윤일, 2013)

8) Welsch가 주장하는 transculturality 용어는 적절한 번역어를 찾기가 쉽지 않다. 원래의 뜻은 사람들이 국경을 넘나들면서 여러 문화가 뒤섞이고 혼용되는 가운데 새로운 문화가 형성되는 과정을 의미한다. 그래서 필자는 ‘넘나들며 아우르기’라는 용어를 줄여 ‘넘어우르기’로 번역하고자 하였다.

## V. 트랜스내셔널 사회 공간에서 정체성 모색

### 1. 사회변화와 정체성

지금까지 살펴본 이주의 동적밀도의 증가이주유형의 변화트랜스내셔널 사회 정체성 위기를 사회과 교육과 관련하여 살펴보면 <표3>과 같은 관점 이동을 알 수 있다.

<표3> 국가 간 이주유형과 다문화 교육시각

시기	이주 유형	자국 내 타문화	국제관계 속 타국의 문화	정체성	문화성격
1500 ~	영구적 이주(서유럽→세계)	<b>민족주의</b> (동질성) →주권, 시민권	국가 간 경쟁·충돌→ <b>국제주의</b> : 베스트팔렌 조약(1648)	집단·지역	고정성 (컨테이너)
1900 ~	영구적 이주(남→북)	<b>동화주의 교육</b> : 주류집단문화→소수자집단에게 이식	<b>국제이해교육</b> : 타국의 인종·문화 이해 → 국제연합 결성	집단·지역	고정성 (컨테이너)
1960 ~	영구적 이주(남→북)	다원주의(한 공간 속에 여러 문화가 공존)→ <b>다문화교육</b>	운송·통신 발달→ 전 지구적 이동→ <b>글로벌교육</b>	집단·지역	고정성 (컨테이너)
1990 ~	비영구적 이주(통근적·순환적 이동)	통근적·순환적 이동 → <b>트랜스내셔널 사회 공간 형성</b> ↳ 지역·국가·세계의식의 약화 ⇒ 자율적 판단에 의존 ↓ 다문화교육의 한계 ↓ <b>트랜스내셔널 시민성(혼합주의 정체성)</b>	↓ 글로벌 교육의 한계	개인·트랜스내셔널 정체성	유동성 (도구상자) (문화혼용)

<표3>을 살펴보면, 사회과 교육에서 함양하고자 하는 민주시민성의 모습은 지속적으로 변해왔다. <표3>에 제시된 바를 구분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근대 자본주의 발달은 국내적으로 민족주의의 성장을 가져왔으며, 민족국가 간 경쟁은 국가 간 충돌을 가져와 또 다른 위협을 초래하였다. 민족국가의 변형을 유지하면서 다른 나라와의 평화로운 질서유지를 위해 국제주의란 새로운 관념을 도입했다. 베스트팔렌 조약(1648)은 서유럽사회의 종교전쟁이 가져온 위기를 해결하는 과정에 생겨난 국제주의를 현실화한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다.

둘째, 1900년 이전에도 국가 간 이주는 있었지만, 이주의 대부분이 서유럽 사람들에게 한정되었고, 이주의 모습 또한 영구 이주가 대부분이었다. 이 시기 서유럽 국가들은 주류 민족이나 국민들에게 시민권을 주었지만, 이주해 온 사람들에게는 시민권을 주지 않았다.

셋째, 서유럽에서 비유럽으로 이주하는 사람들의 수는 1900년 이후 점차 감소하였다. 이에 반해 소득 낮은 지역(남)에서 소득 높은 지역(북)으로 이주하는 새로운 유형의 이주가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그 동안 소득이나 문화면에서 우위를 점하였던 서유럽 국가나 미국 사람들은 남에서 북으로 이주한 이주자들을 차별·지배하려 하였다. 이 과정에 서유럽 국가들은 주류문화에 잘 적응한 이주자에 한해 영주권을 주었다. 이 시기 시민성 교육은 바로 주류집단의 가치제도·문화종교를 이식하는 동화주의 교육이었다. 1910년대 미국사회과 교육의 형성 원인이 된 ‘미국시민화(Americanization)’ 교육도 이러한 동화주의 교육에서 시작되었다.(이종일, 2001: 46-47) 그런 가운데 서유럽 국가들은 다른 국가와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다른 나라의 문

화·제도·종교를 국민들이 이해하는 국제이해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었다.

넷째, 제2차 세계대전의 종결은 국가 간 이주에서 개인의 자율성을 증대시켰다. 그 결과 1960년대에 이르러, 소득이 높은 서유럽 국가나 미국에는 다수의 이주자집단과 이주문화가 뒤섞이게 되었다. 이주자 수의 급증은, 소수자집단을 주류집단 문화에 동화시키려고 한 종래의 용광로모형(melting pot model)의 한계를 드러나게 하였다. 이러한 한계를 해결하는 과정에 연구자들은 국내적으로는 다문화교육을, 국제적으로는 글로벌교육을 주장하게 되었다.

다섯째, 1990년 이후 국경을 넘나드는 순환적·통근적 이동유형이 새로이 나타났다. 순환적·통근적 이동에 바탕을 둔 비영구적 이주와 인터넷·스마트폰의 일상화는 사람들의 의식 속에 국경이라는 경계를 희미하게 하여, 사람들을 트랜스내셔널 인간형으로 변화하게 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외부에서 주어진 특정 문화를 개인에게 강요하는 다문화교육이나 글로벌교육보다, 개인의 삶을 중심으로 자율적으로 새로운 문화를 창조·융합하는 ‘혼합주의(syncretism) 정체성’을 모색하는 교육을 요구한다.

## 2. 트랜스내셔널 사회가 요청하는 정체성

### 1) 집단중심 정체성에서 개인중심 정체성으로

국경을 넘나드는 순환적·통근적 이동의 일상화는 인간을 점차 유목형(노마드적) 인간으로 변모하게 하고 있다. 특히 이전 시기에 찾아보기 힘들었던 순환적·통근적 이동의 증가와 인터넷·스마트폰의 일상화는, 특정한 지역·국가라는 공간에 의존하는 집단정체성의 한계를 드러나게 하였다.

사실 지역이나 문화권을 토대로 한 집단정체성의 영향력 감소는 다수의 문화·종교·가치 등을 혼용·융합·재창조하는 방향으로 변화를 가져왔다. 즉 세계에 대한 개인의 자율성·개방성이 증대함으로써 지역이나 문화권에 바탕을 둔 집단정체성이 개인에게 주는 영향력이 감소하였고, 이는 집단에 의해 형성되고 주입되던 정체성에서 개인이 자율적으로 형성하는 정체성으로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이제 외부 집단이 강요하던 집단정체성은 더 이상 존립하기 어렵게 되었고, 개체가 중심이 되어 지역이나 국가라는 공동체를 생각하는 개인중심의 인식이 중시되기 시작하였다. 트랜스내셔널 사회의 등장은 ‘집단에서 개체로’에서 ‘개체에서 집단으로’ 정체성의 형성방향을 바뀌게 하고 있다.

요컨대 트랜스내셔널 사회의 출현으로 외부집단에서 형성되고 주입하는 정체성에서, 외부 사회·문화를 ‘개인이 적극적으로 수용·창조하는 개인중심 정체성’으로의 변화가 모든 차원(개인 지역 국가 세계)에서 나타나고 있다.

### 2) 트랜스내셔널 사회가 요청하는 국가 정체성

한 사회 속에서 서로 다른 문화집단들이 공존하듯이, 세계 속에서도 서로 다른 국가들이 공존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었다. 특히 순환적·통근적 이동자의 증가는 국경이 개인에게 주었던 넘을 수 없는 경계선의 의미를 약하게 하였다. 또한 인터넷·스마트폰의 생활화는 순환적·통근적 이동 없이도 사람들에게 트랜스내셔널 사회에 사는 것과 유사한 삶을 느끼게 하고 있다.

아마 앞으로의 21세기에도 지금처럼 국경선은 여전히 존재하겠지만, 지금까지 사람들이 느끼던 ‘넘을



수 없는 장벽' 으로서의 국경선의 의미가 점차 단순한 '행정적 구분' 이란 의미로 변해갈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이주유형의 변화는, 개인이 하나의 국적을 가지면서 다른 국적에 대해 배타적 모습을 보였던 종전의 인식에서 벗어나, 개인의 필요에 따라 둘 이상의 국적이나 영주권을 점차 허용하는 방향으로 변해갈 것을 시사하고 있다.

사실 오늘날 다수의 유럽 사람들은 하나의 국적만을 가지면서도 삶의 영역에서는 여러 국적을 가진 것과 유사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 이처럼 집단에 의해 강요된 단일 국가정체성에서 개인들에 의해 창조되는 복수 국가정체성으로의 변화는 이미 여러 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초국가(supra-nation)는 이런 현상을 반영한다 할 수 있다.

### 3) 트랜스내셔널 사회가 요청하는 문화 정체성

순환적·통근적 이동의 증가는, 문화가 개인에 미치는 영향력을 감소시킴과 동시에 개인이 스스로 삶의 영역(가치·문화·제도·국가지역)을 자유로이 선택하고 창조하게 하였다. 개인의 자유로운 문화 선택은, 집단이 개인에게 강요하던 종전의 문화 형성방향과는 달리, 개인이 중심이 되어 다양한 문화를 선택하고 필요에 따라 다양한 문화를 융합·창조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한다.

트랜스내셔널 사회에서 문화는 '개인이나 국가' 에서 '전 세계' 로 문화권 범위의 단순한 호가장이라기보다는, 집단이 만들어 개인에게 수용을 요구하던 '문화정체성' 에서, 개인이 중심이 되어 문화를 선택하고 창조하는 문화형성 방향의 변화라 할 수 있다.

벨시(Welsch)가 주장하는 '문화 넘어우르기(Trans-culturality)' 개념은, 다수의 문화가 함께 하지만 그들 사이의 관계를 섬(island)처럼 분리하여 보는 다문화(multi-culturality) 개념과 문화의 독자성을 인정하면서도 관계를 대립적으로 보는 상호문화(inter-culturality) 개념은, 이 점에서 구분된다<sup>9)</sup>.

요컨대 트랜스내셔널 사회에서 문화정체성은, '지역이나 국가정체성' 과 '글로벌(세계) 정체성' 간의 문화충돌이라기보다는, 집단이 만들어 개인에게 강요하던 '집단중심 문화' 에서, 개인이 중심이 되어 문화를 융합하고 재창조하는 문화형성 방향의 전환이라 할 수 있다.

## VI. 트랜스내셔널 시민성과 사회과 교육의 방향

트랜스내셔널 시대 정체성은 이전 시기 집단정체성과는 여러 면에서 구분되면서, 정체성에 대한 새로운 이해나 수정을 요구할 뿐만 아니라 사회과 교육의 변화를 요청하고 있다.

첫째, 트랜스내셔널 정체성은, 국가정체성과 세계정체성을 상호 모순 혹은 대립관계로 설정하는 종전의 문화에 대한 인식들을 되돌아보게 한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트랜스내셔널 시대 국가정체성과 세계정체성의 관계는, 서로 대립관계에 있다기보다는, 개인중심 정체성의 확장을 의미한다. 즉 국가정체성과 세계정체성의 관계가 상호 모순된 관계로 있다기보다는, 개인중심의 정체성이 개인이 속한 여러 집단으로 상호모순

9) 이슬람 문화와 기독교 문화의 충돌로 오늘날의 문명을 이해하는 헌팅톤(Samuel Huntington, 1997)의 시각은 문화 사이의 만남을 문화의 융합창조를 등한시 하고 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없이 전이된다고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나→지역→국가→세계로의 나아감이 정체성 간의 모순으로 이어지기 보다는 개인중심 정체성의 요소가 공간적으로 확장됨을 보여준다 할 수 있다.

둘째, 과거의 정체성은 특정 집단(지역·국가세계)의 존속을 위해 집단이 특정 의식을 설정해 개인에게 강요하는 집단주의적 시각에서 출발하였다. 이에 반해 트랜스내셔널 시기 정체성은 개인들이 자신의 자율적 선택을 토대로 국가세계 정체성을 혼합·창조하고 있다. 이처럼 트랜스내셔널 시대 정체성은 집단중심에서 개인중심으로 정체성 형성 방향이 변화하고 있다.

셋째, 정체성 형성 방향의 변화 즉 위로부터 주어진 정체성에서 아래로부터 만들어진 정체성으로의 변화는 이 시기 사회과 정체성교육에 혼란을 가져올 우려가 있지만, 개인들이 문화를 융합·재창조하는 '혼합주의(syncretism)정체성' 혹은 '문화 넘어우르기(transculturality)' 로 점차 나아갈 것으로 생각된다.

요컨대 트랜스내셔널 시대의 정체성은 지역·국가세계라는 집단정체성에 종속되어 개인정체성과 상호 충돌하는 정체성이 아니라, 개인이 중심이 되어 자율적으로 지역·국가세계와 마주치며(지역·국가세계와 관련된 개인⇌지역·국가세계) 문화를 융합·창조하는 '혼합주의적 정체성' 으로 나아갈 것을 요구받고 있다.

## < 참고 문헌 >

- 김용신(2013). 2011 초등사회과 교육과정의 글로벌교육 지향성 분석. *사회과교육연구* 20(1), pp.1-11.
- 김정호(2013). 글로벌 시대의 효과적인 초등 사회과 문화교육 지도방안. *사회과교육* 52(3), pp.51-70.
- 나혜심(2010). 탈국경화 시대의 역사교육: 세계사교육을 중심으로. *사회과교육* 49(3), pp.167-183.
- 르몽드 디플로마티크(2014년 2월호 1면). 나도 모르는 ‘나의 정체성’.
- 르몽드 디플로마티크(2014년 2월호 3면). 일반의지 주체인 ‘우리’ 안의 ‘나’.
-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기획/권지현 옮김(2013). 르몽드 세계사. 서울: 휴머니스트.
- 박남수·정수권·서경석(2007). 초등학생들의 세계시민성 육성을 위한 지역연계 세계교육 모형 및 프로그램 개발. *사회과교육연구* 14(4), pp. 213-240.
- 안경주(2013). 한국 가족주의와 트랜스 국가주의적 홈(home). *한국문화인류학*46(1). 235-279.
- 이용일(2009). 트랜스내셔널 전환과 새로운 역사적 이민연구, *서양사론* 제103호, 315-342.
- 이용일(2013). 혼종과 횡단의 공간으로서 유럽과 정체성 정치: 독일 터키 이주민을 중심으로, 부산대학교 인문학 연구단. 문화소통과 동서고전. 서울: 보고서.
- 이종일(2001). 과정중심 사회과 교육, 서울: 교육과학사.
- 이종일(2014). 다문화사회와 타자이해, 서울: 교육과학사.
- 조지형·강선주(2008). 지구화 시대의 새로운 세계사. 서울: 헤안.
- 차기벽(1984). 민족주의, 서울: 종로서적.
- Badie, Bertrand & Pierre Birnbaum(1983). *The Sociology of the State*,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 Basch, Linda & Nina Glick Schiller & Cristina Szanton Blanc(2000). *Nations Unbound: Transnational Projects, Postcolonial Predicaments, and Deterritorialized Nation-States*. London: Routledge.
- Bauböck, Rainer & Thomas Faist(2010)(ed), *Diaspora, and Transnationalism: Concepts, Theories and Methods*, Amsterdam, NI: Amsterdam University Press.
- Clavin, Patricia(2005). Defining Transnationalism. *Contemporary European History* 14(4). pp.421-439.
- De Jong, Gordon. F.(2011), Review: *Diaspora, and Transnationalism: Concepts, Theories and Methods*, *Contemporary Sociology* 40(5), 562-563.
- Faist, Thomas(2008). *Transnationalization in International Migration : Implications for the Study of Citizenship and Culture*. WPTC-99-08. Institute for Intercultural and International Studies(InIIS) University of Bremen.
- Giddens, Anthony(2000). *Runaway World: How Globalization is Reshaping Our Lives*. 박찬욱 옮김(2000). 질주하는 세계. 서울: 생각의 나무.
- Badie, Bertrand & Pierre Birnbaum(1979) Tr. Goldhammer, Arthur(1983). *The Sociology of State*.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 Hammar, Thomas, Grete Brochmann, Kristof Tamas & Thomas Faist(1997). *International Migration, Immobility and Development: Multidisciplinary Perspectives*. Oxford: Berg.
- Hammar, Thomas & Kristof Tamas(1997), *Why Do People Go and Stay?*, eds. Hammar, Thomas, Grete

- Brochmann, Kristof Tamas & Thomas Faist(1997). International Migration, Immobility and Development: Multidisciplinary Perspectives. Oxford: Berg.
- Held, David et al(1983), States & Societies, NY : New York university Press.
- Huntington, Samuel(1996), The Clash of Civilizations and the Remaking of World Order. 이희재 옮김(1997), 문명의 충돌, 서울: 김영사.
- Kewes, Andreas & Max-weber Kolleg(2009). Varieties of National Links in Organizations. Arch europ.social. pp. 522-526.
- Kymlicka, Will(2008). Multicultural citizenship. 장동진 외 옮김(2010). 다문화주의 시민권. 파주: 동명사.
- Malmberg, Gunnar(1997). Time and Space in International Migration. eds. Hammar, Thomas, Grete Brochmann, Kristof Tamas & Thomas Faist(1997). International Migration, Immobility and Development: Multidisciplinary Perspectives. Oxford: Berg.
- Pence, Katherine & Andrew Zimmerman(2012). Transnationalism. German Studies Review 35(3), pp.495-500.
- Swidler, Ann(1986). Culture in Action: Symbols and Strategie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51: 273-88.
- Urry, John(2007), Mobilities, 강현수이희상 옮김(2014), 모빌리티, 서울: 아카넷.
- Vertovec, Steven(2009). Transnationalism. London: Routledge.
- Wallerstein, Immanuel(1995). Geopolitics and Geoculture. 김시완 옮김(1995). 변화하는 세계체제: 탈아메리카 문화이동. 서울: 도서출판 백의.
- Welsch, Wolfgang(1999), Transculturality-the Puzzling Form of Cultures Today, ed. by Mike Featherstone and Scott Lash, Spaces of Culture: City, Nation, World, London: Sage. 194-214.
- Whitehead, A. N.(1991), 과정과 실재(Process and Reality), 오영환 옮김, 서울: 민음사.